



바오로의 회심과 이어지는 여정1)

교회는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을 지냅니다. 그만큼 그의 회심은 교회 안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종 축일이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회심 축일로 바뀌었습니다. 개종보다는 회심이 어감이 조금 더 낮게 들리지만 ‘회심’이라는 단어 안에도 그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의 주님과 깊은 만남의 사건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바오로가 극적인 회심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회심을 통해서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사실 바오로가 없는 초대 교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는 꽤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 거의 65%의 내용이 사도 바오로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회심 사건에 대한 내용도 장황하리만큼 긴 내용이 9장, 22장, 26장에 걸쳐 세 번이나 나옵니다. 9장은 루카가 객관적으로 회심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고, 22장은 성전에서 체포당했을 당시 천인대장의 허락을 얻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고, 26장은 아그리파스 왕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바오로를 보면서 놀라게 되는 하나는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길게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변론을 주님을 전하는 계기로 삼는 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첫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서간들의 대부분이 바오로의 것들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서간들을 읽다보면 그의 놀라운 신앙과 열정에 매료되고 그의 인간미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자기의 둘레를 비추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사도 9.4)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사도 9.5) 라고 묻자,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사도 9.5)

사울이 박해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오로가 표현한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이니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라는 말로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니아스에 의해 멀었던 눈을 뜨게 된 사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오로가 되어 그리스도를 열렬히 증언하며 혼신의 힘을 다 쏟아 전교합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전교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자 사람들이 바구니에 담에 성문 밖으로 달아내려 보내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보려 했지만 신도들이 사울이 개종한 것을 믿지 않고 무서워하며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원로의 한 사람이었던 바르나바의 중재로 겨우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야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말썽이 생기고 결국 고향인 타르수스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을 타르수스로 보내고 교회가 안정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사도 9.31 참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회심 이후에 여러 곳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열정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의 원로들은 바르나바의 중재로 바오로를 받아들였지만, 바오로의 존재가 못내 불편했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좋은 말로, 그 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며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말썽과 문제를 일으키던 인물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오로는 바르나바가 찾아가서 다시 불러 줄 때까지 거의 7-8년의 세월을 고향 타르수스에서 묻혀 지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체험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순수한 빛 속에서 새롭게 빛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전한 회심을 체험하고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타고 난 성격이나 기질마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열렬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온 열정을 쏟으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실은 바오로가 한 것은 자신의 정열을 장소와 목적만을 바꾼 사명에 다 쏟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내는 듯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열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대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배운 뛰어난 언변과 학식을 지닌 바오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

니다.(사도 22.3 참조)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사도들이 자기를 알아주는커녕 자기를 멀리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오로에게 이 고향으로의 유배에서의 고독과 번민을 겪어야 했던 어둠의 시간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의 시기였습니다. 그에게 깊은 고독과 번민을 통해 첫 회심을 깊이 있게 정화시키는 은총의 시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오로에게 첫 회심 이후의 10년은 지나친 과시와 열정이 넘치는 선교 활동 때문에 쫓겨나서 고독과 침묵과 소외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긴 회심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오로가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타르수스에서 해가 저무는 강가를 홀로 거닐면서 다마스쿠스의 사건을 상기할 때 어떤 느낌이였을까요? 공동체에서 소외당한 고독의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넘치는 열정과 헌신을 악한 소행으로 보답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자기를 골칫거리로 여겼던 교회 공동체와 형제라는 이름뿐이었던 그들에게 왜 힘과 정열을 쏟아 부었던가 하는 울분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맺힌 원한은 하느님에게 까지 의문의 화살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던 바오로는 시련의 시기를 겪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열렬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온 정열을 쏟아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바오로가 자신의 열정을 유대교 대신 그리스도교라는 장소와 목적만을 바꾼 사명에 다 쏟으며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해내는 듯한 착각에 빠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오로에게 주님은 꼭 필요한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보도록 해 주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자신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정화되는 고독과 번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시기야말로 모든 성인들이 겪어야 했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도도 어떤 성인도 이 내적 고뇌의 체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사람들은 고독과 번민으로 속속들이 젖어들어 마음의 아픔을 겪으면서 깊은 숙고의 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숙고 가운데서 사람들은 절망의 검은 장막 틈을 비집고 비쳐오는 가냘픈 빛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묵상했을 바오로는 옅처럼 위안과 해방과 평화를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바오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비추임 받아 다마스쿠스의 만남에서 체험했던 그 밝은 계시의 빛 속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가면서 새롭게 변모되어 갔던 것입니다. 바오로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이 되어가고 자기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온전히 주도권을 지니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체험을 처절하게 한 것입니다.

후에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1코린 3,5-6)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 바오로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다만 주인이 쓰시는 도구일 따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사도로 성장합니다.

누구에게나 회심, 또는 회심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계기나 은총의 체험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계기를 반추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깊여나가는 여정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에서도 성장의 아픔은 있기 마련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자비로운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더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겪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전히 진리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고독과 번민의 때, 시련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런 때가 바로 이 은총의 시간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회적인 회심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확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1) 춘천교구에서 실시되었던 사제피정 자료의 일부입니다. 류해욱, 2013년 춘천교구 사제피정 자료집, 2013.